

철학사입문코스Ⅳ

제7강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의 사상 2

제7강 1교시

◆ 데카르트의 사상 2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기계론적 사고의 방향이 근대철학은 말할 것도 없고 근대문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기계론적 사고가 다른 여러 영역들에 번져나가면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res extensa(extended thing)으로 본다. 여기서 thing은 substance, 즉 실체라는 의미를 가진다. 즉 모든 사물은 ‘외연을 가진 실체’인 것이다. 외연을 가진다는 것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탐구가 가능해진다.** 재미있는 것은 데카르트가 물체, 생명체, 신체 사이에 아무런 구분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영혼이 res cogitans(thinking substance)라고 말한다.

→cogitans는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굳이 하자면 ‘정신활동’으로 볼 수 있다.

⇒ 이러한 데카르트의 구분은 중세적 용어로 말하면 ‘**실체적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체적 구분>

예컨대 A와 B가 존재할 때 A에 속하는 것은 절대 B에 속하지 않고 B에 속하는 것은 절대 A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데카르트가 볼 때 body에 속하는 것은 절대로 soul, 즉 영혼에 속하지 않고 영혼에 속하는 것은 바디에 절대 속하지 않는 것이다.

⇒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두 실체가 어떻게 인간에게 붙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ghost in the shell>

⇒ 몸은 완전히 껍데기이고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고스트만 몸 안에 있는 이러한 데카르트의 이원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인 문제제기를 한다. 물질세계를 너무 극단적인 기계론으로 보게 되면 거꾸로 정신을 물질에서 완전히 분리시키게 되는 것이다.

res extensa와 res cogitans는 유한실체이고 신은 무한실체이다.

서구적인 사고방식의 가장 밑바탕에는 조물주의 관념이 놓여 있다. 이것은 플라톤이 말하는 데미우르고스Demiourgos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에 해당한다.

⇒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을 특징짓는 사고는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made는 것이다. 동북아문화나 인도문화에서는 이 세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신들, 인간, 동물 모두 세계 안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플라톤과 기독교적인 생각은 이 세계 바깥에 있는 어떤 초월적 transcendent인 존재에 의해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creature→피조물, 만들어진 것

⇒ 이러한 생각이 데카르트를 비롯한 17세기 철학자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한다.

제작적 세계관이 가지는 중요한 철학적인 함축→immaterial한 것이 먼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immaterial한 것이 material한 것에 구현된다는 사고방식

그러므로 **신은 신체가 없다→순수현실태**

신은 몸이 없기 때문에 사유logos로 세계를 창조한다.

물질도 신이 만들었다는 해석과 물질은 원래 있었다는 해석이 있는데 플라톤의 경우는 명백히 물질이 원래 존재한다.

▲ 세 가지 제작적 세계관

1) 오로지 신이 있고 신의 머리가 형상으로 되어 있고(즉 신의 사유가 로고스로 되어 있고) 물질도 신이 만들었다는 해석

2) 신이 있고 신의 머리가 형상들인데 물질은 바깥에 있다는 해석

3) 형상은 형상대로 있고 그 다음 신이 있고 그 다음 물질이 있다는 해석

여기서 신의 역할은 형상을 물질에 구현시켜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플라톤의 모델이다.

유물론에서는 물질이 먼저 있고 다음에 정신이 생겨나는 것으로 본다.

immaterial은 맥락에 따라 형상, 본질, 보편자, 종/유 등으로 표현된다.

⇒ 신이 인간을 만들 때 몸을 먼저 만들고 영혼을 붙여넣은 것이 아니다. 동북아나 인도에서는 몸을 먼저 만들고 숨결을 붙여넣는다. 하지만 형상철학은 물질이 없는 설계도(영혼)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영혼을 물질에 구현embody시키는 것이다.

철학사입문코스Ⅳ

제7강 2교시

◆ 스피노자의 사상 2

데카르트는 기계론적인 사고에서는 대단히 현대적인 사람인데 영혼이나 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중세적인 사람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데카르트가 기계론이라는 극단적인 사고를 전제한 것 자체가 현대적인 맥락보다는 중세적인 맥락에서 가능한 것이다. 데카르트에게 신과 영혼의 특별한 위상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다.

18세기 유물론에 가면 신과 영혼이 사라지고 물질만 남는다.

⇒ 데카르트는 body에 대해서는 완벽한 기계론적인 설명을 하고 soul에 대해서는 완벽히 중세적인 설명을 한다. 이와 같은 이원론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이원론 자체를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분명 똑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17세기 철학에서 가장 시대를 초탈한 앞서가는 사상가였다. 17세기 초반에는 학자들의 정신세계가 중세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스피노자는 사상가로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이었다. 스피노자는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결국 파문을 당하게 된다.

▶ 참고자료



스피노자 [Spinoza, Baruch de, 1632.11.24~1677.2.21]

네덜란드의 철학자. 데카르트 철학에서 결정적 영향을 받았다. “모든 것이 신이다” 라고 하는 범신론(汎神論)의 사상을 역설하면서도 유물론자·무신론자였다. 그의 신이란 그리스도교적인 인격의 신이 아니고, 신은 즉 자연이었기 때문이다.

출생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주요저서 《에티카》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이분법을 극복한다.

substance = Deus = Natura

실체 = 신 = 자연

⇒ 따라서 세계 바깥엔 아무것도 없다. 만약 세계 바깥에 신이 있다면 신이 그 세계에 의해 제약을 받을 것이다.

신 즉 자연은 (1)물질 속성으로 표현되고 (2)정신 속성으로도 표현되고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3)정신과 물질이 아닌 다른 속성으로도 표현된다.

⇒ 스피노자가 말하는 실체는 속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체가 곧 물질이고 정신인 것이 아니다. 또한 실체에 어떤 속성들이 붙어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 **하나의 실체가 물질로 표현되기도 하고 정신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이다.**

재미있는 점은 물질 정신뿐만 아니라 다른 속성으로도 표현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데 인간은 몸과 마음밖에 없기 때문이다.

속성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때 그것들은 속성으로서는 다르지만 실체라는 점에서는 하나이다. 그런데 각각의 속성들은 계속 변화한다⇒ **modificatio**

속성들의 양태는 계속 변화한다.

예) 내 몸의 속성이 시간 속에서 바뀐다modify. 신체의 변양과 맞물려서 영혼의 modus도 바뀌는 것이다.

→정신 속성과 물질 속성이 계속 변하는데 그 두 변화는 사실 하나의 변화인 것이다. 즉 실체가 바뀌는 것의 두 속성인 것이다.

⇒ 스피노자의 사고는 material한 것과 mental한 것은 근원적인 한 실체의 두 가지 표현들이고 한 실체의 두 표현이므로 당연히 일치하는 것이다.

modificatio의 과정에 의해서 나의 마인드가 계속 바뀌는데 자기의 생명력, 활동력, 에네르기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강할 수도 있다.

▲스피노자의 행복론

스피노자는 변화하고 끝없이 modify되는 세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복을 찾아가느냐에 대해 고민했다. 스피노자가 볼 때 인간에게 절대자유란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은 관계와 조건 속에 있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신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한다. 여기서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고 자신도 그것의 일부인 이 삶 자체, 우주 자체, 세계 그 자체에 대한 사랑이다.